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7 차 , 구원, 선택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구원, 선택입니다.

우리는 요한 신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검토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을 통해 당신께 나아옵니다. 당신의 말씀, 그 모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서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고 당신의 영과 우리 삶 속의
역사에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신학, 지금까지 요한 복음의 스타일, 서론,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구성된 본문, 그리고 21장의 에필로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목적은 주로 전도이며, 17장의 작별 담화와 마지막 기도
에 해당하는 이차적인 목적은 교화이고, 아마도 세 번째 변증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일곱 가지 있지만, 의미는 세 가지뿐이고, 요한복음 14장 6
절은 그 세 가지 의미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그리고
동등하게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연구하는데, 그것은 그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그의 위치를 말합니다. 시간 말씀,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의 끝, 13의 시작,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제 시간이 왔습니다. 17:1도요.

예수에 대한 반응은 이미 서론에 나와 있고, 다른 많은 주제에서처럼 예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1:10과 11에서 부정적인 반응과 12와 13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어지며, 그것이 책의 개요입니다. 12:37은 예수에 대한 반응 측면에서 표적의 책을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를 믿지 않았고, 요한은 심지어 그들이 그의 가르침의 무능함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한복음 20:30과 31에 있는 목적 진술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든 영광의 책 이나 안드레아스 코스텐베르거가 부르는 것처럼 승영의 책 에서 더욱 성취되고 더 좋습니다 .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강화되고 감사하는 책에서 말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증인은 이미 서론에서 다시 소개되었고, 특히 세례자 요한이 있었고, 5장, 나중에 8장에서 예수는 재판을 받습니다. 우주적 재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평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지막에 재판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예수가 재판을 받는 내내 있었고,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많은 증인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자신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증거합니다. 두 증인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영이 증거합니다, 15장 끝. 그리고 제자들도요. 세례자 요한, 구약성경은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범주를 주었습니다. 저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의 그림들. 우리는 그 중 여러 개와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림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과 네 번째 복음서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표징의 책, 영광의 책에 나오는 공관복음과 비슷하게,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주어지지 않은 역동적인 가르침. 놀라운 새 언약의 가르침, 오순절 이후에만 가능한 가르침, 예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요한복음 자체에서 일곱 가지 다른 관점에서 소홀히 여겨진 주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제, 선택과 영원한 삶에서, 아버지 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고,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고, 아들은 그들을 지키며,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을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 마지막 것들에 대한 교리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요한이 강조한 이미와 아직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선택. 요한은 바울의 예정이나 예정, 선택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 교리, 선거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념 오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특정 단어의 모든 용법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만, 우리의 현대 영어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집회는 종종 교회, 지역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테네에서 모인 그리스인들의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의 군중이 그를 삼킬 준비가 되었을 때, 시청 서기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써 모였고, 법정과 규칙과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만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의 집회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오용, 즉 단어 개념 오류의 다른 범례는 특정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캐치워드나 단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캐치워드는 때때로 개념을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완전히 단일 초점이 아닙니다. 즉, 하나의 캐치워드,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교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가지, 양,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찬양하시는 자들이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의 대제사장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익숙한 선거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교리를 세 가지 그림, 이미지, 은유로 전달합니다. 성경 신학은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회복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 교리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성경 저자와 그들의 핵심 Pura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요한의 코퍼스를 훨씬 더 좁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퍼스 내에서 우리는 그림, 은유, 주제, 모티프, 아이디어를 봅니다. 그 중 세 가지는 선거 교리를 전달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요한의 매우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나는 여섯 군대를 남겨둘 수 없는데, 그 중 네 군대는 위대한 대제사장 기도문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준다는 이 개념이 기도문을 결정하고 신학적 맥락에 놓습니다.

아들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칼 바르트가 보았듯이, 그리고 DA 카슨이 동의하듯이, 예수께서는 선택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받은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택함받지 않은 자의 이전 또는 선행적 정체성에 대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두드러지는데, 코스텐버거가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택함에서,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6장에서 발견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35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 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로 올 것이니라.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6:37과 39이어야 합니다.

내 실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올 것이다. 모든 택함받은 자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보존하고, 구원받게 할 것이다. 소위 영원한 안전, 나는 보존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영원한 안전은 충분히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용어는 바꾸지 않겠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시 그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을 주장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이 그를 믿을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순서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올 것이다. 택함받은 자 들은 믿는다. 그들은 택함받기 위해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출하고 믿습니다. 체계적 신학은 강점이 약점입니다. 강점은 사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의 약점은 사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실만 말할 수 있고 여전히 오류를 전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원래의 단어 와 좋은 단어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완적인 진실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 주권 강조는 인간의 책임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신의 주권과 진정한 인간의 책임 사이에 어떤 종류의 역설이 생깁니다. 저는 화려한 말을 써서, 오, 그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상호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믿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35절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 모든 아버지의 선물이 내게 올 것이다. 35에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평행했다. 어쨌든, 우리는 10:29에서 같은 선거의 그림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이 실패하고 신성한 주권이 서로를 꺼안는 것을 봅니다. 10:22 그때 예루살렘에서 헌신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겨울이었고 예수께서 솔로몬의 주랑에서 성전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시키려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불신을 죄로 여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말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 사실, 요한은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코를 세어 보면,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으며, 불신에 대해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러면 이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양들 사이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커스텀 버거는 그것이 사실인 곳을 네 군데나 세고 있습니다.

아하, 그 노트들이 있군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저트와 애플타이저를 비교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신은 내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라.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양과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초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아버지를 묘사하고, 그를 자신에게 주신 분, 예수라고 부릅니다. 개혁 신학은 종종 선거에 대한 철학적 전제로 시작하여 그것을 성경에 읽어서 마치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적 방법입니다. 성경은 선거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이퍼 칼빈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주된 요점은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의 캐주얼한 성격이 그것이 존의 장비의 일부임을 보여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그가 삶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사실 로마서 8장에서처럼,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고소하겠습니까? 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은 없습니다. 여기서 선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여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전달된 이 선거의 모티브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17장입니다. 오,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17:1,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시간의 위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으니, 여기서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당신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아들은 모든 육체의 주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인간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니, 아들 이 모든 택함받은 자에게, 곧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도의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17:9,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8절. 와. 2절과 비슷하네요. 당신께서 아들에게 모든 인간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것은 네 번째 복음서의 주요 요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 여기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택함받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 됩니다 . 그리고 24절, 결론 근처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당신이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이미 아버지께 돌려드린 관점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 택함받은 자들이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구원은 가장 많이 전달되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는 주제로 전달됩니다. 17절의 위대한 선교 기도는 신의 선택에 의해 지배됩니다. 오, 그것은 선교적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절은 선교 기도이지만, 선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하며,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 데서 나타나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번이나 말했지만, 매우 이례적이고 소홀히 여겨집니다.

여기서 다시 적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 모티브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서만, 유일하게 여기서만 예수님이 선거의 저자이십니다. 맥락은 선거가 아닙니다.

문맥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 신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아들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성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체물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민족적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온 참된 빵입니다.

그는 참 빛이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거짓 선조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불완전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빛이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 그래서 아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있는 자들의 책임, 즉 겉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말하자면 그의 언약 백성인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요한은 거듭거듭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암시합니다. 9절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점,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세기 팔레스타인 포도 재배법에 따라 가을 수확 때 가지로 모아져 불에 던져지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없지, 맞지? 틀렸어. 아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마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진자를 완전히

인간의 자유 쪽으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물론, 그들은 그를 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는 그들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택하여 임명하였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아하, 그들의 열매 맺음 뒤에는 그의 선택, 그의 임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의 안수, 사물의 명령으로 번역하거나 적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수, 그들의 열매 맺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임명한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확신은 그들의 머물러 있음에 있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존은 영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올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전에 나왔으므로, 그는 그것을 언급했지만, 이 맥락에서 즉시는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그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19절에서 반복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당신을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한 선택? 글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당신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해. 오, 이건 6장 같아.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나,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인가? 같지 않다. 거기에 유다가 포함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는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맥락이다.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어떤 예정론적 언어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은 그와 그들을 화나게 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여기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

예수는 선거의 창시자입니다. 당신은 광범위한 치료를 보고 싶어합니다 . DA 카슨,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부제, 성경적 관점 의도를 주목하세요. 모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는 제가 방금 언급한 책에서 카슨의 리드를 따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적으로 주권적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책임이 있으며, 때때로 그 두 관점이 겹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반역자들에게 상인으로 팔아넘긴 죄가 있었지만, 요셉은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당신이 나를 이집트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들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죄의 저자가 아니지만, 그는 때때로 악을 선으로 사용하며, 그것이 그가 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악으로 의도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인용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의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중 인과 관계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 백성의 보존, 유지로 이어지는 최우선적인 섭리였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탈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중 인과관계의 최고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예정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죄, 신의 주권, 그리고 섭리는 악을 지배하고 가장 큰 악의 행위, 가장 큰 선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작업에서 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개변수, 절대적인 신의 주권, 진정한 인간의 책임, 중복, 이중 인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특정 행동은 성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처벌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실패한 자유, 그리고 책임은 아시리아의 심판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산헤립은 "오, 좀 보자"고 말하지 않았다. 주님은 "농담이냐?"고 말씀하신다. 아니, 그는 무자비하게 북왕국을 파괴했다.

그리고 신이 말씀하시길, 나는 분노의 막대기를 처벌할 것이다. 이 진동, 인간의 책임, 신의 주권, 인간의 책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다. 하지만 우리는 매개변수를 정할 수 있다.

절대적인 신의 주권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취소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이 신의 절대적 주권과 운명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현실의 신, 경전의 신, 섭리의 신, 구원의 신이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운명의 변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신이 주관합니다. 신이 주관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맹세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절대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생물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의 뜻을 좌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정확히 이 지점으로 이끕니다. 요한복음에는 선거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는 것, 여러 경우에 나타나는 주요 그림, 그리고 17장에 나타나는 강력한 존재감입니다. 15장 16절과 19절에서 아들이 선거의 창시자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선행적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의 언어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운명에 동등하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저는 당시 Covenant Seminary에서 제 선배 동료였던 David Jones의 생각을 읽고, 듣고, 읽을 수 있어서 축복받았습니다. 그는 그 후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책임집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운명 뒤에 서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합니다. 내 언어는 비대칭적입니다.

그는 택함받은 자의 경우에 적극적이다. 택함받지 않은 자의 경우에 그는 단지 그들이 죄에 합당한 것을 거두도록 허락하기 위해 선언하고, 결정하고, 계획한다. 그들은 진노의 그릇이며, 멸망을 위해 미리 준비되었다.

수동적이고 준비된 것입니다. 자비의 그릇과 관련하여 바울은 성도들이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한 자비의 그릇이라고 썼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하는 데 더욱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택할 때 그는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당신은 아들을 모든 육체의 주로 삼으셔서 당신이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아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여기 또 다른 차트가 있어요.

큰 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원. 그리고 그 원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도 포함됩니다. 그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하며,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섭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하며, 보존하고, 유지하고, 유지하고, 통치하며, 그의 목표, 그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향해 인도합니다. 섭리는 큰 예정의 원 안에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정의 원 안에 있는 또 다른 하위 집합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뿐만 아니라 11장 초반에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코스텐버거가 보여줬듯이 그것을 네 군데에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0:26.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노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바꿔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진리입니다. 단어 자체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길을 잃습니다.

요한이 죄에 대해 말하는 주된 방식은 불신이며, 예수를 믿지 않거나 때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압니다.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요점은 이렇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선거 모티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의 사전 정체성이다.

저는 그들을 양과 염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양은 믿기 전에 양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양이라서 믿습니다. 물론, 다른 하나는, 당신은 진술을 뒤집을 수 있고, 그것은 요한 복음에서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기 때문에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커튼이 올라가고, 우리는 그 뒤에 있고, 우리는 신의 계획을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히는 아니지만, 진실로요.

내 양들은 나를 믿는다. 그들은 나에게 복종한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이런.

결국, 그것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 요한 복음보다 더 큰 체계적인 신학적 고려 사항.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구원을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1: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한 시대 전에.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미리 알고 그에 따라 선택하셨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물론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했다는 사실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사실, 때때로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생으로 정해졌습니다.

행전. 나는 그것을 잃었다. 영생에 임명된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사도행전. 아, 주님은 죄인들에게 선택하시다. 사도행전 13:48.

영생에 임명된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음으로 드러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걸 하고 싶은 순서를 얻었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게 궁극적인 이유인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다른 말은 그것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이유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인가? 아니요. 성령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적용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복음에서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과 성령이 제 마음을 여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과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진술인가요? 아니요.

궁극적인 진술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로마서 9장. 저는 이 모든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 중 어느 것이 덜 궁극적인 이유를 무효화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다소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는 지금 부정적인 면을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서 죽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용서해 주세요, 두 번. 요한복음 8:21, 그리고 24장 두 번. 요한복음 8:21.

요한복음 8:24. 죄 가운데서 죽으라, 죄 가운데서 죽으라. 지금 당장,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게 궁극적인 이유인가? 개인적 죄. 실제적 죄. 신학 용어.

지옥 구절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은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일까요? 아니요.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로마서 5장은 원죄 교리를 설명합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타락했을 때, 우리도 타락했습니다. 그의 타락은 우리를 가능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오염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죄, 즉 원죄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진술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마도 9절 때문일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정해졌습니다. 버림받음. 완성된 제 차트입니다.

큰 원, 예정. 그 안에는 섭리와 하나님의 다른 많은 주권적 행위. 예정의 하위 집합.

이중 예정. 긍정적 예정은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예정은 버림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 때 그들을 간과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비의 그릇입니다(로마서 9장). 그들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 더욱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11장 초반에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자들과 다른 자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요한의 세 번째 선거 그림인 긍정적 선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행적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나를 믿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는 그들을 지킨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의 레슬링 경기에서 그것을 본다. 나는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만 너희가 사는 방식으로는 그의 친족이 아니다. 너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8:42,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당신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선행 또는 사전 정체성 문제를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큰 그림에 포함해야 합니다.

맙소사. 우리는 이전에 믿음을 다루었고, 그것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보았고, 믿음과 불신의 현실을 확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확증하고 가르칩니다.

보세요, 이 세 장의 그림에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때문에 양들은 믿는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다. 코스텐버거는 나에게 버림을 다루는 더 많은 구절들을 보여준다.

안드레아스 코스텐베르거 ,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의 신학, 459쪽.
요한복음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믿게 됩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신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말이야.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신다.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중 예정론을 제시합니다 . 10, 25, 26.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12. 저는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 17 내가 아버지께 구하노니 14, 16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성령이시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이 받을 수 없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자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그를 압니다. 그러니 여기 이 버림받는 일이 있습니다.

8:47. 10:25, 26. 14:17.

그리고 저는 코스텐버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12장 12장 37~40절.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12:36, 그는 떠나서 그들에게서 숨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도드, CH 도드는 다음 부분에 대한 그의 방향은 빛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스스로를 숨긴다. 소름 돋지만 좋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떠나서 그들로부터 숨었다.

그들은 빛을 거부하고 빛은 숨는다. 그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성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불신은 예언을 성취합니다. 주님,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없게 하셨습니다.

6장처럼 들립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저에게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가 신학을 할 때만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다른 권위자들과 이성애 호소하고, 우리의 이성과 심지어 경험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으며,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것이고, 이것을 복음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르미니우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이 신학을 홍보하는 책을 쓰도록 격려합니다. Brian Shelton, 예방적 은혜에 대한 훌륭한 책. 그가 누구에게 바쳤는지 보세요.

그는 또한 그것을 그에게 예방적 은혜를 가르쳐서 그가 호스트를 붙잡을 수 있게 해준 아르미니우스파 형제에게 바쳤습니다. 어쨌든 요한의 선거는 이 세 그림에서 주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줍니다.

아들은 선거인입니다. 그는 선거의 저자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선행 또는 사전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여겨지는 구원이라는 영광스럽고 유익한 주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구원, 선택입니다.